

# “美, 트럼프-김정은 회동 내부 논의…북미간 소통 아직 없어”

CNN 보도 “회담진행 위해 집권1기 같은 진지한 계획 없어”  
1기때 방일중 ‘변개화등’ 트윗제안 전례 있어 지켜봐야할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아시아를 방문 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국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많은 이들이 북미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개최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면서 이 같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논의 동향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등 이달말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간 회동 가능성을

논의해왔지만 실제 회담의 진행에 필요한 진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1기와 같은 소통은 아직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식통 2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서한을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CNN은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백악관 경호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계기 방한에 앞서 두차례 한국을 찾았지만 판문점 지역을 답사하지는 않았다고 CNN이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PEC 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지난 8월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올해 안에 만날 의향을 피력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직접 관심을 표명하면서 두 정상간 만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더 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기조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북한 관영

매체들에 보도됐다. 이후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거론한대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지만 양측간에 이렇다할 움직임이 포착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강화와 주미대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PEC 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북한으로서는 그런 조짐을 보였지만, APEC을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거라는 조짐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이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항상 열어놓고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이어 두 사람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회동했다.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29일 트윗을 올려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고, 그로부터 5시간 여만에 북한이 공식적 담화를 내면서 이튿날 만남이 전격 성사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외교가에서는 외교적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북미간 사전 조율이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 방문 기간중 김 위원장에게 SNS로 ‘변개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합뉴스

## ‘회장 실종설’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그룹…간판 철거

美英 정부 제재 발표 후 현금 인출 몰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중심가인 센숙에는 한국 건설사가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다. 1천세대가 넘는 비교적 큰 규모 단지다. 왕복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캄보디아 대기업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의 본사 건물 2개 동이 우뚝 서 있었다. 본사 건물 사이 뒤편으로는 나란히 늘어선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도 보였다. 본사 1층 프린스 은행 앞에서 서서히 현자인 경비원이 쏘아보며 다가왔다. “오늘(18일)은 은행 영업을 안 하느냐”고 묻자 “토요일이라 문 닫았다”고 통명스럽게 답했다. 옆 본사 건물 앞으로 옮겨 사진을 찍자 또 다른 경비원이 뛰어나와서는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는 “아파트를 보러 왔나”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자 뒤쪽 사무실로 가보라고 손짓했다. “여기서 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본사) 지침”이라고 짧게 답했다. 고층 건물 맨 꼭대기에 회사명과 함께 붙어 있던 프린스 그룹 로고 간판은 철거된 채 흔적만 남아 있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이 그룹 회장은 천즈(38)로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진 그는 카지노와 스캠 센터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남치·금금 등 조직범죄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프린스그룹 본사. /프놈펜=연합뉴스

사용되는 웬치를 만든 뒤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실종설과 중국 송환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천즈 회장의 프린스 그룹을 제재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제기됐다.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서 천즈 회장을 비롯한 이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을 비롯해 이 회사와 연계해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진베

이 그룹’,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엑스 거래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프린스 그룹 본사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후이원(Huione) 은행 지점 간판도 사라진 상태였다. 금융서비스 대기업인 후이원 그룹도 최근 미국 재무부에 의해 금융 제재를 받았다. 지점 앞에서 만난 경비원에게 “왜 간판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건물 외벽 도색을 다시 하기 위해 간판을 뺐다”고 둘러댔다. 그는 “최근에 돈 찾으러 온 손님 많았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주에 특히 많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日다카이치, 총리 확실히…자민·유신, 연정 사실상 합의”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복수의 야당 간부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는 오는 21일 치러질 것으로 관측되는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에게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와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20일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한다”며 “다카이치 총재가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확실한 정세가 됐다”고 해설했다. 유신회는 이날 오사카에서 상임 임원회를 열고, 20일 의원 총회를 개최해 연정 참여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 지명선거는 사실상 중의원(하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두 정당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다. 여기에 자민당 출신인 중의원 의장을 더하면 232석이 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석을 보유한 우익 성

향 참정당 등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서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과반을 달성해 결선 투표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야당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다만 유신회는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 등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본래 유신회 측에 각료 자리를 제안하며 유신회 의원이 입각하는 ‘각내(閣内)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신회는 자신들이 요구한 국회의원 정원 10% 축소와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등 정치 개혁 방안을 다카이치 내각이 실시하는지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입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요시무라 대표는 전날 TV 프로그램에서 “정책 실현이 (연정 참여) 목적”이라며 입각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 방글라데시 최대 공항 화재 6시간만에 운항 재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이 나라 최대 공항에서 18일(현지시간) 화재로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가 6시간 만에 재개됐다. 로이터통신은 하즈랏 사잘랄 국제공항 관계자들을 인용해 18일 오후 9시6분(한국시간 19일 0시6분)에 이 공항에서 화재 진화 후 첫 항공편이 출발했다고 전했다.

공항 당국 발표에 따르면 화재는 이 공항의 화물터미널에서 18일 오후 2시15분(한국시간 오후 5시15분)께 발생했다. 진화에는 소방당국뿐만 아니라 육군·해군·공군 부대도 동원됐다. 이번 화재는 최근 1주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3번째 대형 화재다. /연합뉴스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2. 신속하고 확실한 A/S
-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픽닉스 K-07

픽닉스 G-01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     |                         |
|-----|-------------------------|
| 헤드  | 단종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형55g)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5g (±10g)             |

####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     |                      |
|-----|----------------------|
| 헤드  | 단종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2g (±10g), 샤프트 50g |

####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     |                         |
|-----|-------------------------|
| 헤드  | 단종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형90g)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5g (±10g)             |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CMYK